

출제 박미영
한국NIE 협회장
그림 최지민



요일별 주제 안내

월요일 (격주)
독서 NIE
아트 리터러시 NIE

화요일
시사 토론 NIE

목요일
인도주의 NIE

변신(프란츠 카프카)

등장인물



01.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



02. 사람들의 냉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레고르



1 프란츠 카프카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하죠. 사람들이 그레고르를 진짜 벌레 보듯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자 그레고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레고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레고르가 느꼈을 감정과 생각을 모두 찾아 이모티콘(☹️)을 그려보세요.

| | |
|---|----|
| 그레고르의 감정과 생각 | ☹️ |
| 난 직장을 잃었어요.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슬퍼요. | |
| 외모가 달라졌지만 차갑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 주세요. 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 |
| 날 따돌리지 마세요. 모두가 날 멀리하면 정말 비참해요. | |
| 나도 가족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어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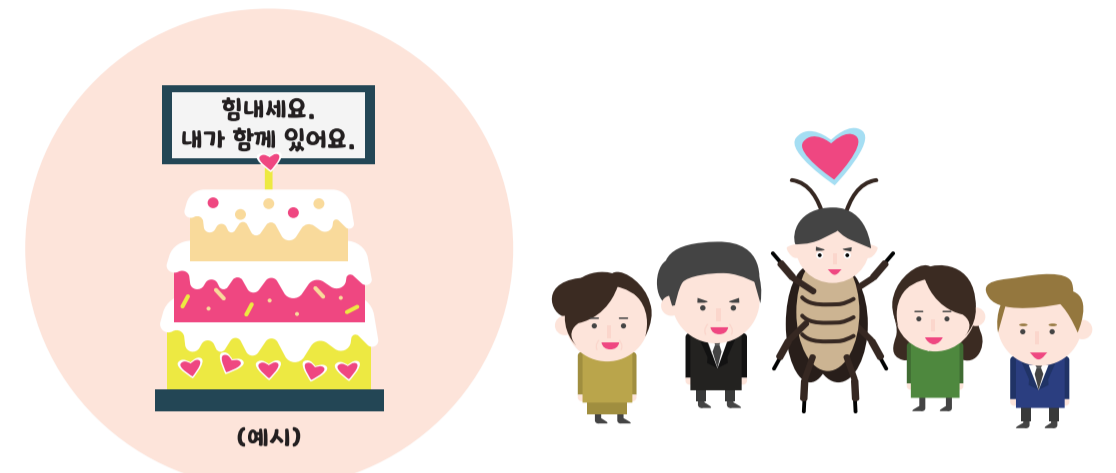
2 얼마 전 코로나 19가 확산 중인 유럽에서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소설 속 그레고르를 냉대(차갑게 대함)하듯,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거나 소외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음 설명을 읽어보세요. 이런 생각·감정을 갖는 건 누구일까요?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번호를 쓰세요.

| | |
|--|-----|
|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느껴요! | 누가? |
|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 슬퍼요. | |
| 외모가 다르지만 차갑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아요. | |
| 날 따돌리지 마세요. 왕따는 정말 비참합니다. | |
| 우리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 ① |

<보기>

- ①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노인들도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 ② 코로나19 때문에 하고됐어요. 내가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것 같아요.
- ③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갑게 대해요. 난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 ④ 내가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도 초대하지 않고 따돌려요. 난 왕따가 됐어요.

3 시험을 망쳤다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얼마나 우울할까요? 실직한 부모님을 나머지 가족이 차갑게 대한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슬플까요? 주변 사람의 냉대·무시·무관심·차별·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패배와 좌절을 맞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케이크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케이크와 함께 건넬 카드에 응원하는 문장을 써보세요. 케이크에 사탕·하트 등을 그려 예쁘게 꾸며보세요.



'인도주의(Humanitarianism)'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본격적인 근대 인도주의의 활동은 1863년 세계 적십자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어린이조선일보와 대한적십자사는 아동·청소년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지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